



자유총연맹-통일부 통일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평화통일 실현 의지 함양 위해 협력키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11월 4일 서울 중구 자유센터 회의실에서 통일부 통일교육원(원장 백준기, 이하 통일교육원)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실현 의지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및 국민복지 가치 구현을 추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자총 박종환 총재, 최역 사무총장과 통일교육원 백준기 원장, 추석용 교육협력부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총과 통일교육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강사진 양성, 강좌 개설 등 평화·통일 교육 실시 협력 ▲강사진,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운영 협력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총 박종환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협약은 우수한 강사진 양성, 좋은 콘텐츠 제작 등을 활발하게 해 자총이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평화와 통일의 인재 양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활발

하게 협력하여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및 환경정화 캠페인

임직원 및 중앙운영위원, 남한산성 일대서 봉사활동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 임직원 및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10일 남한산성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사 및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자총의 박종환 총재, 최역 사무총장 및 임직원, 중앙운영위원회 오웅필 위원장 및 위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이뤄진 코로나19 방역 봉사 및 환경정화 활동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남한산성 일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종환 총재를 비롯한 봉사자들은 코로나19 방역 및 환경정화 활동 캠페인 중 행사객들에게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마련한 마스크 1000개와 국민민



복 홍보물 200개를 배포하며 코로나19 방역 및 환경정화에 대한 경각심을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자총 박종환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과감히 수용하는 발상의 전환과 각고의 노

력, 그리고 전략적 실천이 필요하다”며 “자총은 그동안 쌓인 봉사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봉사활동을 보다 세밀화하고, 여러 봉사단체와 봉사자들을 봉사활동의 수혜자와 연결해 주는 새로운 시도를 적극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자유평화연구원장 백성호 연변대 교수



한국자유총연맹 박종환 총재는 11월 3일 백성호 연변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를 신임 자유평화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했다.

백성호 신임 연구원장은 (주) 동춘향운 법정관리인과 민주평통 상임위원, UNDP 운영위원 및 동북아 물류운송 조정관, 중국 연변과기대 객원교수를 지냈고, 현재 동북아물류연구원장, 중국 연변대 조선반도 연구원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 연변주정부 경제고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말 활동계획 논의 및 환경정화 봉사 ... 전국청년협, 충남서 11월 월례회의

전국 시도청년협의회(회장 이승우)는 11월 13일 충남지부(충남 공주시 소재) 사무처에서 청년협의회 회원 17명이 참석해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연말 동절기 봉사활동 계획으로 ‘국민복지 사랑의 쌀

전달식’과 다일공동체의 밥퍼 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밥퍼나눔 봉사활동’ 등이 활동 안으로 다뤄졌다.

둘째 안건으로는 시·도지부 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당해 글로벌리더연합 시도별 회원 모집 결

과 활동 우수 대학생 3명을 선발, 장학금 수여 방법과 수여 일정 등을 심의했다.

셋째로는 2021년도 ‘전국 청년회장 합동연수’ 계획이 다뤄져 연수 일정과 장소 등이 논의됐으며, 코로나 사

태에 따른 방역생활 수칙 단계에 따라 합동연수 규모와 범위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청년협의회는 회의를 마친 후 공주시 제민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